경제난·가족해체 화풀이?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

광주·전남 올 신고 99건 중 79건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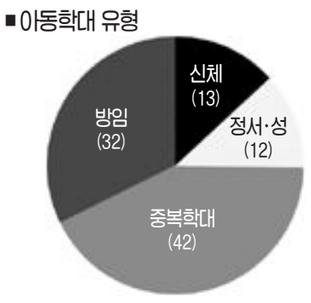
#.증조부모·조부모·부모와 함께 사는 이모(6·광주시 서구)양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아버지(42)·어머니(40)는 오전 6시~9시 사이에 나가 일한 뒤 밤 늦게 들어온데다, 한글을 모르는 할아버지·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양은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았다. 이가 썩어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부모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무관심 속에 점점 말 수 없는 아이로 변해갔다. 이양은 현재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뒤, 광주의 한 특수교육시설에서 한글 교육을 배우고 있다.

#.선천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박모(1·광주시 북구)군은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코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48)에게 머리·얼굴·가슴을 폭행당했다. 맞을 때마다 증세가 심해지면 아버지는 더욱 난폭해졌다. 지적장애 2급인 어머니(32)도 아들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맞은 적도 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박군에게 화풀이를 한 적도 있다. 박군은 현재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서 부모와 격리돼 생활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 〈단위:건〉

■아동학대 유형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지만 이혼·가출 등으로 가족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아동 학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4일 광주와 전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02건으로 전년동기 490건보다 12건(2.45%) 늘었다. 올 들어 지난 3월 31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99건이 접수됐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부모 6건, 교사 및 시설종사자 5명, 기타 9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자 어린이가 51명으로 남자 어린이 48명보다 많았다. 학대 유형은 중복(신체·정신적) 학대 42건, 방임 32건, 신체 학대 13건, 정서 및 성 학대 12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피해 사례 중 21건만이 친인척·일시·장기보호 등으로 격리됐고, 원가정 보호(69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을 뿐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단 3건에 그쳤다.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되도록 아동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보다는 가정의 복원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한선의 관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아동 학대 피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근 저출산 대책 논의가 활발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아이를 낳더라도 잘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상담치료사 등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상근하며, 아동학대·폭력 사건 접수, 학대 아동 보호, 상담 치료 등을 맡는다. 아동학대·폭력 신고는 1577-1391로 하면 된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연막소독 시연 4일 광주시 북구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열린 '2010 하계 방역 소독 발대식'에서 공무원 및 민간 위탁 방역단원 등 120명이 연막소독을 시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진 군수·부의장 갈등 군민들이 풀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배심 조정

언론사 낀 손배맞소송 합의 이끌어

명예훼손 여부를 둘러싼 군수와 군의회 부의장, 지역 언론사 사이의 법정 다툼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최인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군민배심원들이 참석한 민사배심 조정을 갖고 지난해 강진군에서 불거진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황주홍 강진군수와 강진군의회 김용호 부의장, J인터넷 신문의 발행인 윤모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황 군수는 당시 J사가 "강진군이 사적지인 가마터를 자기자본 5000만원에 불과한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김 부의장의 주장을 보도하자 김 부의장과 윤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부의장과 윤씨는 이에 "정당한 의정 활동과 보도내용을 트집잡아 고소한 것은 무고"라며 황 군수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1년여를 끌어온 이들의 갈등은 법원과 군민들에 의해 손쉽게 해결됐다. 군민 배심원 9명은 지난달 30일 첫 조정에서 서로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사배심조정은 일반인들이 배심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유대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흥지원은 지난 2006년부터 군민배심원이 참석하는 배심조정제도를 도입해 총 8건의 사건 중 7건의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사회의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주민증 위조 게임머니 충전

광주동부경찰은 4일 인터넷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임시 주민등록증을 다른 이름으로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윤모(22)씨 등 2명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달 1일 광주 한 동사무소에서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김모(23)씨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위조, 통장 1개와 2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게임머니 70만원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학교 경비원들 '근무시간 2배 월급은 절반'

학교들 지침 무시 용역업체와 턱없이 낮게 계약

광주지역 학교 안전요원(경비원)들이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는 기본이고,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계약 주체인 학교에서 시 교육청의 인건비 예산 지침을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액수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들에 따르면 광주지역 294개 초·중·고교에는 1개교당 1명씩 학교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다. 통상 '학교 경비원'으로 불리는 이들의 근무는 1997년 도입, 학교 당직·숙직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퇴직 인력으로 월급여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지침에 따라 120만원이다.

학교안전요원의 근로계약은 학교와 인력용역업체간에 이뤄진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월 최대 노동시간인 360시간의 2배에 가까운 월 평균 528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실질 월 급여는 60만~70만원(실수령액)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와 학교안전요원의 월 급여 계약액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모 용역업체 사장은 "경기도 등의 학교는 월 120만원선(퇴직금·4대 보험 포함)에서 계약을 한다"면서 "광주는 평균 95만원대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계약액"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비리 교직원 처벌하라"

전남대총학 회견 … 예결산안 공개 등 촉구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본부는 학내 비리 교직원을 처벌하고 학생들에게 예결산안 공개 및 공동 감사단을 구성하라"고 밝혔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이어 "대학본부는 일주일째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하고 있다"며 "대학 특성상 해당 학과 교수의 허락없이 조교가 2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 전용할 수 없는데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특히 "지난 2007~2009년까지 3년 분량의 대학 예결산 안 문제가 이제야 불거졌다는 것은 그동안 대학본부가 예결산 안 처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처리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면서 "대학본부 측은 예산 사용 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빌린돈 갚으려 룸메이트 물건 훔쳐

쌍나팔

○…원룸에서 초등학교 동창과 함께 살던 20대 여성이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으나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창의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양모(여·23)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께 서구 풍암동 모 원룸에서 같이 사는 동창 김모(여·23)씨의 옷과 신발, 손목시계 등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

○…양씨는 두 달 전부터 김씨와 원룸에서 함께 살았는데, "공동생활을 위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친구가 자신의 몫을 주려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